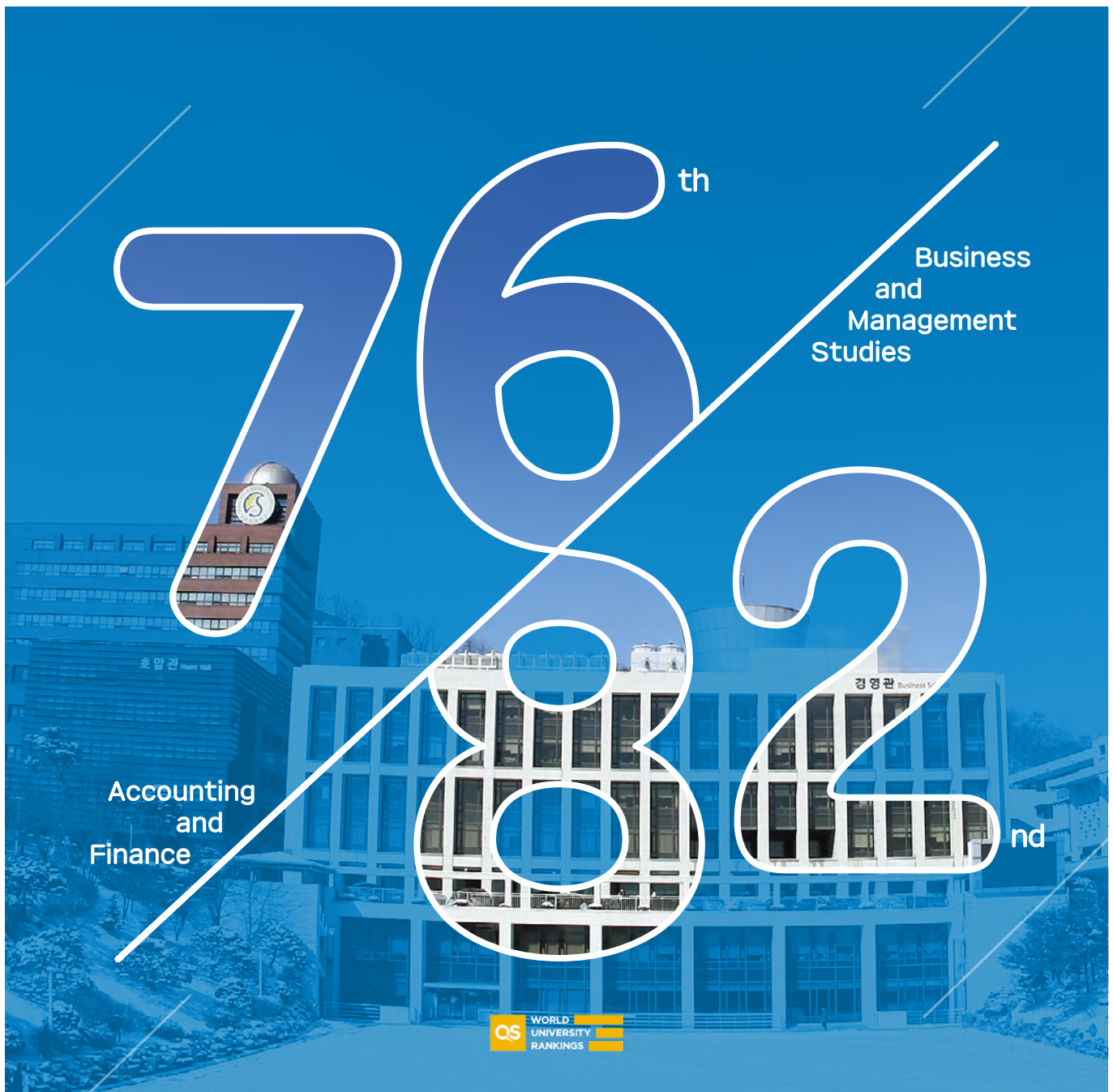


SKK BUSINESS SCHOOL NEWSLETTER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소식지 2022.01 Vol.6



Contents

3

핀테크MBA 모집

4

경영대학
FOCUS NEWS

8

교육프로그램별
NEWS

경영학과&일반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경영전문대학원(EMBA)
경영대학원(IMBA)
W-AMP 소식

27

FACULTY
NEWS

교수 동정
신임 교원소개

36

DONATION
NEWS

동문회 소식
기부금 소식

39

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주소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발행인

안희준

학생성공·미래가치

The Global Leader, SKKU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MBA 과정



금융·인공지능(AI)·데이터사이언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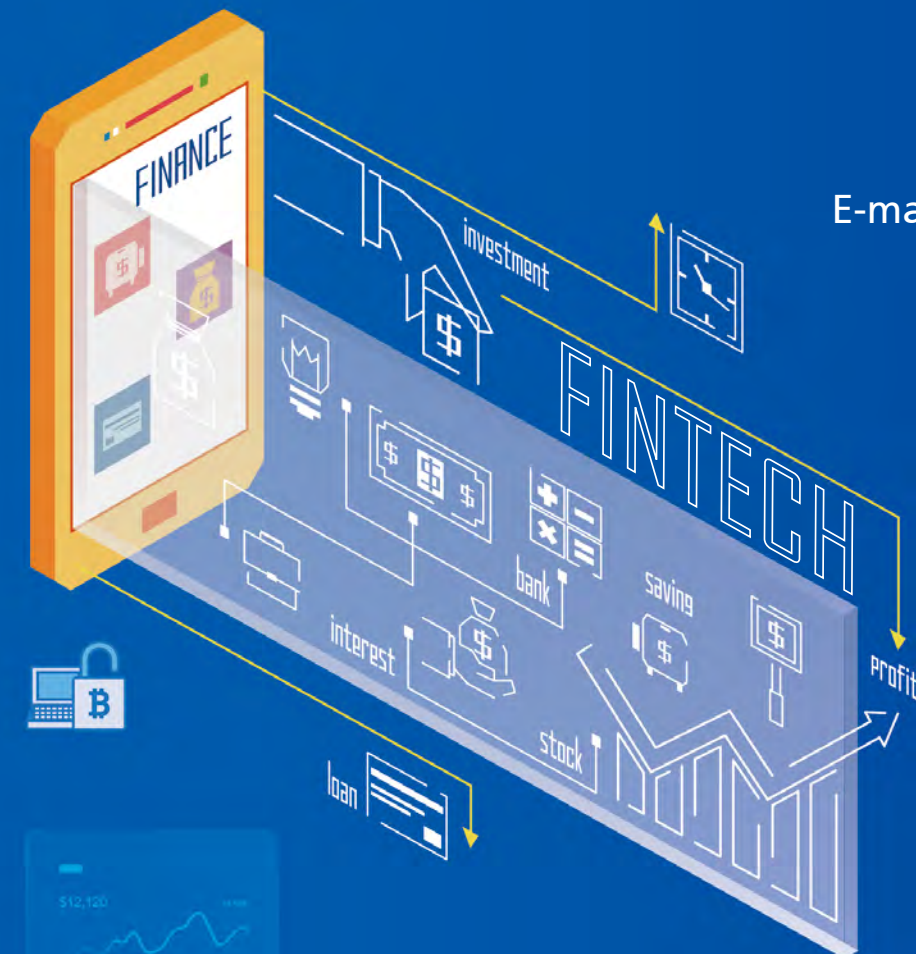
융합 교육을 통해 핀테크 리더를 꿈꾸는 여러분,

성균관대학교 핀테크MBA가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 : 02)740-1682

E-mail : ftmba@skku.edu





위에서부터 안희준 학장, 김동필 동문회장, 이재범 동문

2021년 여름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온라인 개최

안희준 경영대학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특히, 기업의 생산과정에 빚대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졸업생들의 학사과정을 격려하였다. 또한 동문이 된 졸업생들에게 후배들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김동필 경영대학 총동문회장은 사회인으로 거듭난 졸업생들이 그 동안 쌓아온 역량과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길을 선택하여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대학인 모교의 위상에 큰 자부심을 갖고 학교를 사랑하는 경영대학 동문이 되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범 경영학과 76학번 동문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이 자신만의 새 그림책을 잘 그려나가야 하며, 그 방법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긍정의 상상, 한계 없는 상상, 시간과 내용이 담긴 계획을 통해 본인만의 상상력으로 ‘잘 했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을 그려나가길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감이 충만으로 웃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였다.

성균관대, 서울 소재 대학 중 ‘졸업생의 취업 현황’에서 가장 높은 취업유지율 기록

서울 소재 대학 중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유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과 계열이 강세인 대학들의 유지율이 우세했다.

7월 27일 <아시아타임즈>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졸업생의 취업 현황’에서 서울권 대학의 분기별 취업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와 서강대가 가장 높은 취업유지율을 기록했다. 두 대학 모두 전체 평균 8.6%포인트(p)보다 4.5%p 적은 편차율로 4.1%p를 기록했다.

취업유지율은 대학 졸업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취업률 지표다. 교육부가 아르바이트나 단기간 취직을 취업률에 반영시키는 편법을 막기 위해 매년 6월 직장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다.

즉 1차와 4차 취업유지율의 편차가 적을수록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건전한 직장을 다닌다고 볼 수 있다.

2019~2020년 서울권 대학별 취업률 · 취업유지율 추이					
대학명	취업률		취업률 증감율	취업유지율(2020)	
	2019년도	2020년도		1차	4차
성균관대	77.0%	78.6%	▲1.6%p	97.4%	93.3%
한양대	73.4%	73.8%	▲0.4%p	95.5%	91.0%
서강대	70.4%	73.7%	▲3.3%p	97.4%	93.3%
고려대	70.3%	73.3%	▲3.0%p	96.4%	91.9%
연세대	70.1%	72.5%	▲2.4%p	95.7%	90.6%
서울대	70.1%	70.9%	▲0.8%p	95.4%	90.4%
송실대	69.7%	68.6%	▽1.1%p	94.7%	87.8%
경희대	68.3%	67.4%	▽0.9%p	93.1%	85.4%
홍익대	67.6%	64.7%	▽2.9%p	94.2%	88.2%
동국대	67.4%	69.0%	▲1.6%p	96.0%	89.4%
삼육대	67.2%	64.5%	▽2.7%p	86.8%	75.4%
국민대	67.0%	67.0%	—	93.0%	84.6%
중앙대	66.3%	70.1%	▲3.8%p	94.7%	88.5%
광운대	64.9%	60.6%	▽4.3%p	93.2%	86.8%
한성대	64.7%	63.8%	▽0.9%p	87.6%	77.7%
건국대	64.5%	65.8%	▲1.3%p	94.3%	87.7%
상명대	64.4%	63.1%	▽1.3%p	88.5%	78.1%
숙명여대	64.4%	62.5%	▽1.9%p	91.1%	81.4%
세종대	64.2%	63.6%	▽0.6%p	92.6%	84.3%
한국외대	63.7%	65.2%	▲1.5%p	93.0%	85.9%
동덕여대	62.4%	66.6%	▲4.2%p	87.0%	71.4%
이화여대	62.1%	63.4%	▲1.3%p	91.5%	84.0%
성신여대	59.6%	56.5%	▽3.1%p	86.5%	71.7%
서울여대	58.8%	59.6%	▲0.8%p	90.1%	74.8%
단위=%					

성균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화된 교육 인프라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며 “학생 성공 비전이 졸업 후 취업으로 구체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MBA 프로그램 신설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안희준)은 핀테크MBA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핀테크MBA는 미래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끌어갈 핀테크 전문가를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한 MBA로, 1년 6개월간의 학업을 통해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직장 생활과 학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주중 저녁과 주말인 토요일에도 수업이 개설되어 학생의 스케줄에 맞게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택을 통해 미국 South Carolina 대학에서 Business Analytics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연한 수업 일정과 국내 대학 유일의 BK핀테크육연구단과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 최고 수준의 전임교

의 진로와 취업에 모든 자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균관대의 경우 전년(77.0%) 대비 취업률이 78.6%로 1.6%p 상승했다.(출처 :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723500215>)



원 중심의 강의, 풍부한 장학혜택, 복수학위를 통한 글로벌 핀테크 전문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입생(수시) 모집기간은 12월 20일(월)부터 2022년 1월 9일(일)이며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문의 상담은 성균관대 핀테크MBA 홈페이지 또는 핀테크MBA 행정실(Tel. 02-740-1682)로 연락하면 된다.

제1회 성균경영학술제 온라인으로 개최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안희준 학장, 이종은 부학장, 김영한 교수, 김다혜 교수

지난 7월 19일(월), 학생회 단비와 경영대학 행정실 공동주관으로 <제1회 성균경영학술제>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회계 전공과 재무 전공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총 20팀 이상이 예선에 지원하였고,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선심사를 거쳐 전공별로 상위 6개의 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발표점수와 연구보고서 점수의 합산을 통해 최종 심사가 이루어졌다.

회계전공에는 이종은 주임교수, 재무전공에는 김영한 주임교수, 김다혜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심사 및 평가를 진행했다. 제1회 성균경영학술제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한 안희준 경영대학장은 “무더운 날씨와 방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제를 준비한 학생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이번 학술제가 본인의 관심 분야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격려했다. 오은호 경영대학 학생회장은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매 학기 학술제를 열어 경영대학 고유의 문화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건학 제623주년 기념 장기근속,
회갑 및 공로 표창 전달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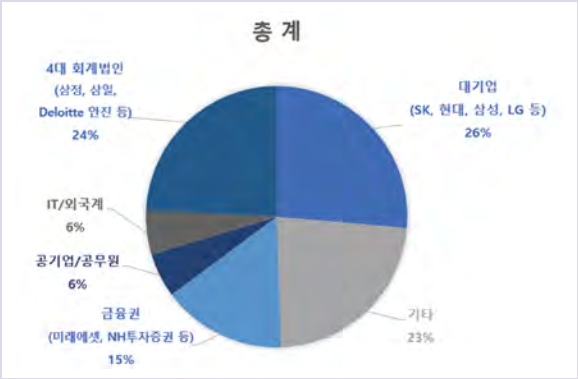
경영대학은 건학 제 623주년 건학기념일을 맞이하여 장기 근속, 회갑 및 공로 표창 대상자 총 5명의 교수 및 직원에게 상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대상자는 김용준 교수(30년 근속), 정홍주 교수(30년 근속), 한상만 교수(회갑), 전선규 교수(회갑), 김도연 주임(공로 표창)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안희준 경영대학장은 장기 근속, 회갑 및 공로 표창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앞으로도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려운 취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영/글로벌경영학과
취업성과 고공행진,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

공개채용 폐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환경 악화 등 얼어붙은 채용시장으로 취업문이 좁아졌지만 성균관대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졸업생의 취업성과는 고공행진이다. 이번 2021학년도 하계 졸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자 91명 중 4대 회계법인(상정, 삼일, Deloitte 앞진 등) 24%, 대기업(SK, 현대, 삼성, LG 등) 26%, IT/외국계 6%, 공기업/공무원 6%, 금융권(미래에셋, NH투자증권 등) 15%, 기타 23%이다. 그 외 IT/외국계 기업에도 5명이 채용되었는데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3M KOREA 등에 채용되어, 경영학도임에도 여러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종은 부학장(경영학과장)은 “팬데믹으로 더 힘들어진 고용환경속에서도 우리 경영대학 졸업생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재학생들에게 <Job학다식,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취업준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실 직원들과 교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원(경영78),
카카오 부회장 겸 카카오뱅크 이사회위원장 특강 성료

김주원 카카오 부회장 겸 카카오뱅크 이사회위원장 “카카오뱅크 이야기: 설립(창업)에서 IPO까지” 주제로 11.3(수) 특강 개최
성균관대학교는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明倫) 강좌 2회차 특강으로, 김주원(경영78) 카카오 부회장 겸 카카오뱅크 이사회위원장을 초청해 11.3(수) 15시 경영관 Live Virtual Studio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은 김일환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재학생 220여명, 교직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주원 의장은 카카오뱅크 창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현재 국내 시가총액 12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과 성공 요인 등에 대하여 재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경영학과를 졸업한 선배로서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인



그 외 IT/외국계 기업에도 5명이 채용되었는데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3M KOREA 등에 채용되어, 경영학도임에도 여러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종은 부학장(경영학과장)은 “팬데믹으로 더 힘들어진 고용환경속에서도 우리 경영대학 졸업생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재학생들에게 <Job학다식,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취업준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실 직원들과 교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드, 대학생 때 해봤으면 하는 활동 등에 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 강좌는 본교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정착 및 진로 설정을 돕고, 우리 대학의 교시인 인의예지의 가치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자산운용연구(Asset Management Review, AMR)』,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자산운용센터에서 발간하는 『자산운용연구(Asset Management Review, AMR)』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자산운용연구』의 학문분야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및 이와 관련성 있는 재무·투자론으로 연 2회(6월, 12월) 발간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펀드, 포트폴리오 및 연금 관련 연구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박영규 자산운용연구 편집위원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학술지로서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가 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간 본 학술지를 위해 성원해 주시고 애써 주신 분들에게는 매우 보람된 일”이라며, “향후에도 자산운용연구센터는 경영대학내 연구센터의 발전 모델이 될

이현구 회장(경영학과 68),
경영대학 학생들을 위한 「중봉동문장학금」 수여

지난 12월 15일(수), 경영대학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중봉동문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중봉동문장학금 수여식에는 기금의 기부자인 이현구 회장[경영학과68, 라까사웍스㈜]을 비롯하여 안희준 경영대학장, 이종은 부학장, 김종욱 부원장/경영연구소장, 장영봉 글로벌경영학과장, 이증상 경영대학동문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중봉동문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고다경, 김윤서, 김혜현, 표경훈(이상 경영학과), 이규호(글로벌경영학과) 총 5명이다. 지원 기준은 경영대학 학부 2, 3학년 재학생 중 직전 2개 학기 취득 학점이 각각 12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재학 중 평점평균이 4.0 이상이었으며, 경영대학 기금운영위원회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였다. 이날 표경훈(경영

이현구 회장(경영학과 68),
경영대학 교원들을 위한 「중봉학술연구기금」 지원

지난 11월 15일(월), 「중봉학술연구기금」 지원에 선정된 교원들과 만찬회를 실시했다. 「중봉학술연구기금」은 경영대학 동문이 자 중봉 이현구 회장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경영대학 내부 학술연구 지원 제도이다. 이번 1차 년도 3개 전공(경영정보/생산, 마케팅, 매니지먼트 분야)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장영봉 교수(경영정보/생산), 이은주 교수(마케팅), 한영지 교수(마케팅), 김안드레아 교수(매니지먼트) 김도현 교수(매니지먼트



수 있도록 산학연구와 학술연구 발표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중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재지로 선정하고 있다.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면 전문 학술지로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교수 및 연구원의 업적평가 등에도 반영된다.



학과17) 학생은 “법조인이 되어 제가 받은 도움들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보람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현구 회장은 “학생들이 앞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의 동량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좋은 결과를 통해 기부자의 보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트)가 제출한 총 5개이다. 이현구 회장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연구성과가 도출되길 바라며, 우리대학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영학과 & 일반대학원 소식

지난 6월 10일(목)에 제16회 학생성공스토리 특강을 진행했다. <경진대회 도전과 보람찬 수상: 팀프로젝트 성공 스토리>라는 주제로 경영학과 김어진 학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수원시 지속가능한 리빙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다음 시(詩) 페스티벌 활동가(서울문화재단&SKKU 캠퍼스타운 사업단), 도시재생 플라톤 창업학교/인문학을 위한 융합 교육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의 경험을 공유했다. 항상 배움과 발전이 있는 삶, 배움으로부터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 김어진 학우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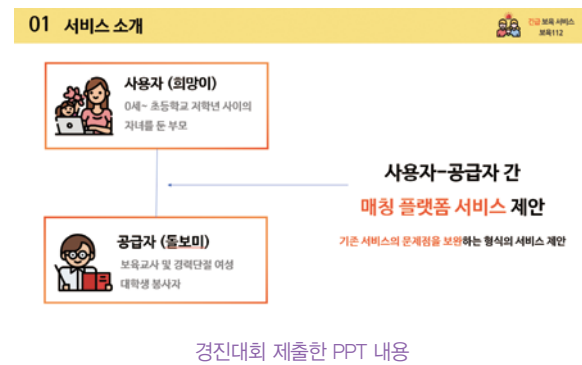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경영학과 20학번 김어진입니다. 2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한 리빙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학생성공스토리 연사자로 강연하였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Q 여러 활동 및 다양한 수상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했던 활동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1학년 여름방학 때 경진대회와 다음 시 페스티벌에 활동가로 참여하였습니다. 경진대회에서는 수원시의 기존 보육 서비스의 한계를 탐색한 다음, 사각지대를 해결할 즉각적인 보육 서비스와 부모들끼리 육아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품앗이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긴급보육서비스 보육112'라는 긴급보육서비스를 실제 어플처럼 구상해 UI를 제작하였고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페스티벌은 시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시에 관해 토론하고 공연도 하는 페스티벌인데, 활동가로 참여하여 페스티벌을 어떻게 진행할지 기획하고 홍보하였습니다.

김어진(경영 20) 학우,
수원시 지속가능한 리빙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1학년 겨울방학에는 도시재생 플라톤 창업학교와 인문학을 위한 융합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플라톤 창업학교에서는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간단하게 창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인문학을 위한 융합교육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해 간단하게 학습하고 융복합 사례를 통해 사회과학연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고, 홍보마케팅 서포터즈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제출한 PPT 내용

Q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또는 활동 당시 에피소드가 있나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브레인스토밍과 인터뷰, 피드백입니다. 저희는 비대면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는데, 비컨버스라는 어플을 통해 효율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문서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어플인데,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아이디어에 대해 30분 정도 빠르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였습니다. 팀원들과의 회의 없이,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즉시 바로 글로 남길 수 있어서 좋았고,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한 눈에 보며 빠르게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구체화한 다음에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수원시로 직접 인터뷰를 갔었습니다. 시민분들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거절하셨고 이상한 눈길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팀원분이 밝은 에너지로 이끌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민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시민분들께 먼저 다가갔고 성균관대 학생증과 경진대회 포스터, 저희 팀이 제작한 아이디어 ppt를 제시하며 시민분들께 저희를 어필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피드백인데, 저는 여러 번의 피드백 때문에 아이디어가 다듬어지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여 수상까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씽킹 교육프로그램에서 경진대회 아이디어에 대해 팀 별로 발표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1인당 포스트잇 2장을 사용하여 각 팀별로 피드백을 진행했는데, 한 장에는 그 팀이 잘한 점을 적고 다른 한 장에는 그 팀이 개선해

야 할 점을 적었습니다. 이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한 점을 보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한 사람당 개선할 점을 적어도 하나씩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학생성공스토리 강연 당시 김어진 학우의 모습

Q 활동 당시 준비하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활동 당시 코로나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팀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셨고 저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대면 회의에 비해 비대면 회의는 훨씬 비효율적이었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회의는 항상 카카오톡 회의가 아니라 화상 회의로 진행하였으며 카메라와 마이크를 무조건 켜도록 팀원들끼리 규칙을 정했습니다. 대신에 비대면의 장점을 살려 하루에 평균 2시간씩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비대면이므로 회의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기록한 다음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힘든 점이 있었는데, 역할분담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정확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한승아(경영 16, Billage 대표) 학우,
창업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지난 7월 22일(목) 종로 클러스터 창업썬스리 문화·예술·콘텐츠 창업경진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대회는 종로구의 지역문화 특색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창의융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리대학의 한승아(경영 16, Billage 대표)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한승아 학생과 창업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 말아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해야 하고 특징인이 역할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닌 모두가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발표나 UI 제작 등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행해야 하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저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 오프라인 활동은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팀원들끼리 하였고 저는 자료조사나 자료정리, ppt 제작, UI 수정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그래도 경진대회 제출 기간이 끝나갈 때는 일주일동안 서울에 머물며 노력하였습니다.

Q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무엇인가요?

진로는 마케팅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스포츠마케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무작정 하기보다는 마케터의 역량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한 활동들을 타임라인을 짜서 한 단계씩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배움과 발전이 있는 삶, 배움으로부터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그저 경험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도움이 되고 변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학생활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새내기이고 경험이 없거나 경진대회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 번쯤은 경진대회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였던 저도 경진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대학 학우들 모두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책 읽는 마을, Billage'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경영학과 16학번 한승아라고 합니다.

Q 이번 종로 클러스터 창업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종로 클러스터 창업경진대회가 무엇인가요? 수상 소감과 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종로 클러스터 창업경진대회는 종로구와 성균관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세 대학의 캠퍼스타운이 주최한 창업경진대회인데요. 종로 지역문화 특색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콘텐츠 창업경진대회입니다. 아무래도 Billage가 다양한 걸 시도하고 사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초기 단계이다보니 멘토링이나 지원금도 필요했고, 팀원들과 회의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창업 공간도 필요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본선 전에 2차례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발견하고, 도움도 많이 되어서 멘토링 받은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멘토링에 지원금, 창업공간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Q 책읽는 마을 Billage팀은 어떠한 주제로 수상을 하였나요?

책 읽는 마을, Billage는 '독립출판물 정기구독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BM)으로 수상하게 되었어요. Billage는 독립서점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는 프로젝트로, 책과 서점 독자를 이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기구독 서비스는 매달 다른 독립서점과 파트너십을 맺어 독립서점 책방지기가 추천해준 독립출판물과 다양한 구성품(책방지기와 작가님의 큐레이션카드, 독서기록책갈피 등)을 매달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독립서점과 관련된 콘텐츠도 발행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성격유형테스트에 따른 독립서점추천테스트를 개발하기도 했어요. 독립서점의 부흥을 위한 일체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https://linktr.ee/Billage_book 링크나 @billage_book 인스타그램에 방문하여 많이 구경해주세요!!)



Q 이번 창업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또는 활동 당시 에피소드가 있나요?

빌리지에서 '독립출판물 정기구독 서비스'를 포장할 때가 생각나요^^ 저희 멤버들이 직접 포장을 하는데, 손재주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포장용 조화를 자르는데 다들 애를 먹기도 했고, 포장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양기캔들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똑딱똑딱 너무 잘해서 신기했었죠 ㅎㅎ 조화자르기도 똑딱, 책갈피 거치대도 똑딱!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소소한 것도 직접 해야할 일이 많아서 이런 작은 일들이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이 큰 자산이 되기도 하고요!

Q 활동 당시 준비하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희가 전에 독립서점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무언가를 하기에 쉽지 않고, 독립서점 사장님들로



부터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해서 피봇(Pivot)하게 되었죠. 서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오프라인 공간이다보니 오프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에 맞춰서 온라인 중심의 정기구독 서비스를 보강하고, 또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독립서점 사장님들의 니즈를 듣기 위해서 파트너십 사장님들과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고요!

Q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선, Billage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예상할 수 있듯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해당분야에서 종사하고 싶습니다. 목표는 한 단어로 떨어지는 구체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제가 배운

걸 활용해서 해당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특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창업에 대해 관심있는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준비-발사-조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 무조건 조준 없이는 발사하지 않는 성향이었는데, Billage활동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운영할 때에는 망설임보단 도전하고 많이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후회없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정환(경영15) 학우, "성적우수상, 성균 최우등 졸업상 수상으로 경영대학 수석졸업" 관련 인터뷰



Q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경영학과 15학번 박정환 입니다. 8학기의 학사과정 동안 좋은 학업성적을 유지해서 올해 8월 학위수여식에서 경영대학 성적우수상과 성균 최우등 졸업상을 수상하며 경영대학 수석졸업으로 학사 과정을 끝마쳤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네요^^

Q 2021년 학위수여식에 성적/연구력우수상에서 학장상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매 학기 학업성적에 큰 욕심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노력의 결실로 받은 기분이 정말 만족스러운 졸업식이었습니다. 물론 학장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에 매우 뿌듯하고 기뻐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앞둔 시점에서 저 스스로의 잠재성을 다시금 믿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자신감이 낮아질 찰나에, 법조인의 꿈을 향해 오랜 기간 공부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졸업식에 참석해서 직접 이 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네요.



졸업앨범 촬영 당시 모습

Q 학부시절때 참여했던 교내·외 활동이 있을까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도 소개해주세요.

대학 입학 직후 3월에 경영대학 학생회 b-friendz에 들어가 1년간 경영대학 학우들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편의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봉사활동처의 수요와 학생들의 공급을 매칭해주는 '단체봉사활동 1대1 매칭 사업' 입니다. 저는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경영대학 학우들이 반별로 문묘, 광화문 등에서 정기적인 봉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면서 학우 간 친목도모도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준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 중 전공서적으로 인한 학우들의 금전적 부담을 해결하고자 '전공서적 베풀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로가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 작은 나눔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학우들의 편의와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사명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8학기를 마치고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책 인턴으로 활동하며 입법 절차를 보조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미취학아동이 연안 여객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뢰했는데요, 육아비용 부담과 민영 선사의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국회 정책 인턴 수료, 표창장 수여식

Q 여러 번의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았는데, 본인만의 비법이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징검다리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6회, Dean's List 4회를 받은 경험이 있어 좀 더 현실감 있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후배님들도 많이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 다양한 전공, 교양 과목들과 이를 강의해주시는 교수님들 가운데에 본인이 선택하는 단계인 '수강신청'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강의후기와 강의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흥미와 강점에 잘 맞는 수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엔 경영 전공과 법학 과목, 교양 과목 각각에 투자하는 노력의 강도를 균형 있게 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본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쏟더라도 이해가 잘 되는 과목이 있는 반면, 전공이나 법 등 기억의 휘발성이 강한 과목도 있어서 이런 과목들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과 중 혼자 보내는 여분의 시간에 휘발성이 높은 과목들을 틈틈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꼼꼼히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전체 진도를 빠르게 따라가 훑어보고 쉽게 잊혀지는 부분을 다시 신경써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한 모든 과목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방법이 있는데, 세세하게 암기를 하기 전에 세부내용들 간의 구조와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공부했어요. 무작정 책을 펴고 파트별로 정확히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머릿속에서 몇 장에서 어떤 소주제에 속한 내용인지를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객관식은 물론 서술형에서 특히 논리적인 답을 써낼 수 있더라고요.

Q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일찍이 저는 꿈의 진로를 법조인으로 정했고, 졸업 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민, 형사재판을 방청하면서, 법을 따로 학습하지 않아 법에 무지한 일반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는데요, 법적 전문성을 갖춰 원만한 분쟁해결에 힘쓰는 법조인이 되어 그들을 돕고 싶네요. 하나의 법조항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의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학 생활 중 경영대학 학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며 본인만의 아이덴티티와 강점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어요. 개인마다 꿈을 가지는 계기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학우 분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면 더 잘 될 것이다'이라는 직설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을 쪼개 학업과 다수의 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적성에 가장 잘 맞는 길을 찾아가는 유형의 친구가 있는가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길을 명확히 이해하고 집중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친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금해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 스스로 이해해주면서, 본인의 꿈에 맞는 방법으로 진로를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요.

최영수 지도교수 인터뷰, '장정윤 원우(박사) 미국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회계학 조교수 임용' 관련

우리 대학 경영학과 졸업생 장정윤 박사가 미국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회계학 조교수로 2021년 8월에 임용되었다. 장정윤 박사는 「Pay Ratio and Earnings Management」(지도교수:최영수)로 2020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현재 미국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에서 회계학 조교수에 임용되었다. 지도교수로서 함께 준비한 최영수 교수님을 만나 장정윤 원우가 조교수로 임용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교수님께서 지도한 박사과정생 중 장정윤 원우가 미국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회계학 조교수 임용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도교수님으로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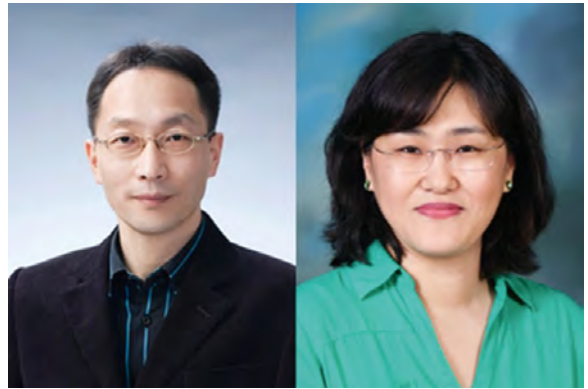
무척 기쁩니다. 장정윤 박사가 저의 세번째 제자인데 교수 임용은 첫번째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회계법이나 회계관련 기관 등에 진출하여도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이 교수 임용을 목표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만큼 본인의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지도교수로서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Q 장정윤 원우가 조교수로 임용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도교수로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윤 박사는 저희 학교에 박사과정으로 왔을 때부터 해외 대학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해외로 나가도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안의 만이로서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구요. 거기다가 코로나사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미국 대학들이 교수 임용 계획을 철회 또는 연기했기 때문이죠.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한 것 같고 그 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도교수로서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추천서를 잘 쓰려고 노력한 것과 기도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네요. 여러 외국계 기업에서의 경력과 대학교 강사로서의 강의 경험 등이 풍부했던 지라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지만 학위 취득 후 빠른 시간 안에 교수로 임용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도교수와 박사과정 학생으로, 교수님과 장정윤 원우가 함께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해외 대학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의 양은 애초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니 좋은 논문 하나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와 같이 한 공동연구가 게재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논문을 SSCI 저널에 투고한 상태이고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 논문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장정윤 박



최영수 교수(왼), 장정윤 원우(오)

사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잡고 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Q 장정윤 원우는 어떤 학생이였는지요?

쾌활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친구입니다. 가끔 먼저 저에게 연락하여 점심을 같이 하기도 하고, 스승의 날 때 앞장서서 다른 지도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모임을 만드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서로가 신뢰하기에 저와는 속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구요. 제가 인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곤 하는데 장정윤 박사를 비롯한 제 지도학생들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Q 장정윤 원우와 같이 대학원 진학 및 해외 또는 국내에서 교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학의 경우 예전에 졸업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국내 대학에 임용이 되었는데, 최근 3~4년 동안은 교수 임용이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장정윤 박사와 같이 박사과정 시작 때부터 해외 대학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가 국내 대학 교수인 분들도 해외 대학에서 경험을 쌓고 들어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임용은 연구의 질 뿐만 아니라 양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해외 대학의 경우 연구의 질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박사과정 동안 하나의 세부 연구분야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영어실력을 체계적으로 높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학은 여전히 박사학위자에 대한 전 세계 대학들의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글로벌경영학과 소식



Q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학기 University of Reading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글로벌경영학과 18학번 김혜주입니다. 평소에 교환학생을 한 번쯤 꼭 다녀오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한 차례 미뤘다가 이번 기회에 드디어 다녀오게 되었네요!

Q 이번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University of Reading 교환학생을 무사히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출국하기 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제가 출국한 1월달만 해도 영국의 확진자 수는 6만명을 훌쩍 넘어갔고, 그 때에는 백신도 지금만큼 활발히 공급되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교환학생을 신청한 대다수의 학우분들이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김혜주(글경 18)학생, University of Reading 교환학생 스토리

저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삶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괜히 코로나가 걸리진 않을까',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이 더 심하지 않을까'와 같은 가지 말아야 할 수백가지 이유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저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학 생활 중 제가 내린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다른 학우분들 없이 혼자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혼자 모험하는 느낌도 들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해낸 경험은 제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평소 생활할 때에나 여행을 할 때에도 거리두기, 마스크, 소독 등 위생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고,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움직이니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Q University of Reading은 어떤 대학교 인가요? 그 곳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였나요?

레딩대는 영국 레딩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교환학생이 열린 대학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대학들과 최근에 들어서야 교환학생을 열었기 때문에 교환 수기도 없어서 꽤 애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레딩은 한적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소도시입니다. 특히 레딩대 캠퍼스는 아주 넓어서 레딩 시내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최고조였을 때에 가도 오히려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캠퍼스는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고 초록 풀밭이 많으며 지나가다 보면 심심찮게 청설모나 고양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행은 주로 사람이 북적북적한 관광지 위주로 가니까 이런 한적한 분위기의 레딩대가 전 좋았습니다. 레딩대의 또 다른 장점은 런던과 가깝습니다. 특히 런던 중심가로 가는 경유지인 런던 패딩턴 역과는 30분 거리이고, 중심가까지 가는 데에도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서 당일치기 여행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레딩대의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방식은 성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매주 화상으로 진행하는 Tutorial session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사례 분석이나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영국 현지 학생들과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신선했습니다. 교우관계는 주로 같은 플랫에서 사는 플랫메이트들과 이루어졌는데, 처음 와서 적응하기 힘들 때에 문 앞에 쪽지를 남겨줘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같이 요리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또 레딩대에서는 다른 영국대학들과 다르게 학식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데,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을 기회가 제공되니 정말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Q 교환학생 선발되기까지 어떠한 준비를 했나요? 경영대학생들이 알면 좋은 팁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실 교환학생 선발이 막연히 어려울 거라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환학생을 선발하는 두 가지 기준은 크게 영어 성적과 학점입니다. 교환학생에게 요구하는 영어 성적(주로 TOEFL, IELTS)은 그리 높지 않고,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특히 성대생이라면!) 영어 성적을 준비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낮은 경쟁률의 학교, 또는 미달인 학교는 해당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만 충족할 경우 지원하면 거의 붙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영어 성적을 아예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영어를 못한다고 처음부터 단념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쟁률이 높은 학교에 지원한다면 학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이 있어도 크게 어렵지 않고 다른 지원자들도 실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큰 변별력이 없다고 느꼈고, 결국 학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학점이 낮을 경우, 리스트에 있는 학교를 충분히 탐색하여 경쟁률이 낮거나 미달인 곳을 찾아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조건과 실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이 합격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생각했던 교환학생 활동과 실제로 경험한 것과 차이가 있었는지요?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마냥 즐거웠던 일만 있던 건 아닙니다. 흔히들 외국에 대한 여러 환상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설

렘을 안고 출국했지만, 실제로 그런 환상은 한두달만 지내다 보면 금방 사라집니다. 특히 첫 달은 가족과 친구들과 둘러싸인 안전지대에서 활동하다가 갑작스레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현지인으로서 익숙했던 시스템과 혜택이 여기서는 당연하지 않다는 점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알아듣기 힘든 영국식 발음과 함께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다 보니 소통이 어려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생활 양식, 새로운 장소를 만나는 건 이 모든 걸 상쇄할 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지만 동시에 지루함을 주고, 또 변화를 거부하는 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으로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공존하듯이, 이러한 양가감정을 통해 오히려 교환학생 경험이 더 풍부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또 외국생활을 직접 하면서 깨달은 것이 여행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교환학생 경험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추후에 외국에 나가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지 고민하는 학우분들께 교환학생은 아주 좋은 "예방주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Q 김혜주 학생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같이 졸업을 앞둔 고학년 친구들도 진로에 대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 나이 대에는 뭘 해야 한다는 모티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막연히 자신의 길을 미리 단정해버리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주객전도가 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고민하는 단계에 머물고 싶고, 완벽주의자보단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험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계획은 인턴 활동을 비롯한 여러 경험을 더 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끝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여유가 생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아마 대학 생활 중 제가 했던 최고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가기 전에는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감을 가졌더라면 이제는 제 가능성을 더욱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고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학우분이 계시다면, 눈 질끈 감고 지르시길 바랍니다.

신입생을 위한 글로벌경영학과 전공특강모임.Zip, “신입생들이 전공에 한 발짝 다가간다.”



신입생들의 전공 이해를 돕기 위한 신입생 전공특강모임.Zip이 7/7(수), 7/8(목) 양일 간 진행되었다. 입학 후 전공에 밀접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적은 신입생들을 위해 다양한 전공별로 일상적인 부분에 접근하여 전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향후 글로벌경영학과에서 배우게 될 세부 전공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학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영봉 글로벌경영학과장, 김영한 교수, 김지영 교수, 배준형 교수

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만날 수 없었던 동기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특강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두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7월 7일에는 글로벌경영학과장 장영봉 교수와 매니지먼트 전공 배준형 교수가 연사로 나섰으며 다음날 재무전공의 김영한 교수와 마케팅 전공의 김지영 교수가 특강을 진행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받고 싶었다. 동기들과 잠깐이었지만 시간을 보내며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글로벌경영학과는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IT서비스학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글로벌경영학과 2팀 수상

디지털 뉴딜 정책 대국민 홍보 및 참신한 지능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한국IT서비스학회에서 대학생/대학원생 및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사회현안해결 지능화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글로벌경영학과에서는 총 5팀이 참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론 마스크(11기 강동현, 12기 윤주희, 11기 이호현)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치킨쉬림프(12기 이지수, 12기 신민지)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론마스크(11기 강동현, 12기 윤주희, 11기 이호현)팀은 ‘글로벌 리스크 극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혁신’이라는 주제에 맞게, 코로나19로 위축된 여행 산업에 초점을 맞춰 이를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고안했다. 일



왼쪽부터 윤주희, 강동현, 이호현 학생

론마스크 팀장인 강동현 학생은 “우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

처음에 공모전을 나가자고 제안했을 때 선뜻 같이 열심히 해주고, 저희 팀의 부족한 부분들을 매워주고 든든하게 함께 해준 윤주희, 이호현 팀원, 이 두 분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장영봉 학과장님과 열심히 응원해주신 학과 행정실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한다. 앞으로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 분야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다.” 라고 전달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치킨쉬림프(12기 이지수, 12기 신민지)팀은 심리방역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 면에서, IT기술을 사용한 스마트 화분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표하였다. 치킨쉬림프의 이지수 학생은 “IT 라는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새로운 분야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였다.”라고 전달하였다.



이지수(왼), 신민지(오) 학생

장준서(글로벌경영학과 20), 「2021년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국무총리표창 수상

글로벌경영학과 장준서(20학번) 학우는 제 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21년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장준서 학우는 2010년 아동총회 참석 이후 10년간 의장단, 지도자 등으로 활동하였고, 제5,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학창시절동안 아동인권증진 활동을 지속하였다. 오랜 시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힘 쓴 장준서 학우를 만나보자.

㉠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에 글로벌경영학과 13기로 입학한 장준서입니다. 대학 합격 후 터진 코로나19 탓에, 1년 반 동안 온라인 수업만 해 왔기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 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아동들을 위해 힘쓰신 분들이 받으셨다는 걸 잘 알기에 더욱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 아동



왼쪽부터 시계, 수장, 표창장 순

정책 분야에서의 공적이 조금 더 인정되어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국무총리표창 이상 훈격(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포장, 훈장)은 행정안전부 별도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되기에 상의 구성도 신기했습니다. 표창장 글씨는 붓글씨로 사람이 직접 쓴 것이었고, 국무총리급의 수장과 시계를 함께 받았습니다. 마침 표창장을 대리 수여 해주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님이 성균관대 선배님이라, 상을 받을 때 전공도 물어봐 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 **준서 학생이 이 때까지 했던 활동들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글로 쓰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2020.03.01.~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학사과정
2010.07.~08.	제 7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참여(보건복지부 주최)
2011.07.~2012.08.	제 8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참여 및 대구경북지역 의장, 전국대회 분과위원장
2012.08.~2013.08.	제 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의장단 활동 및 참여
2013.08.~2014.08.	제 10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전기 의장단 활동 및 참여
2015.02.25.	보건복지부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전국아동대표
2014.08.~2015.08.	제 1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전기 의장단 활동 및 참여
2015.06.~2018.06.	UN아동권리협약(UN CRC)제 5·6차 아동보고서 집필진
2015.08.04.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법안 발의 기자회견 아동대표 (국회 정론관, 진선미 의원)
2015.08.~2016.08.	제 12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전기 의장단 활동 및 참여
2016.05.~2016.09.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모니터링사업 1기 참여
2016.05.20.	보건복지부 아동권리현장 제정 토론회 고등학생 대표토론자
2016.08.~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참여위원회 부위원장
2016.08.~2017.08.	제 1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전기 의장단 활동 및 참여
2016.08.~2018.12.	제 1·2회 전국 아동권리 옹호 동아리 네트워크 사업 CBC 및 전국 아동 학술 예술 컨퍼런스 CFC 사업 기획 및 조직위원장
2016.11.25.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간담회 고등학생 대표 토론자 (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7.08.	제 14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전기 의장단 활동지원
2019.02.04.~02.08.	UN아동권리위원회 UN아동권리협약(UN CRC) 제 5,6차 보고서 사전회의 한국대표 프리젠테이션(CRC Pre-sessional WG 82 nd Session Presenter (Palais Wilson(UN OHCHR))
2019.03.~현재	대한민국아동총회 TF위원회(제 16, 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2019.05.05.~05.23.	제 97회 어린이날 행사지원 및 포용국가아동정책 발표회 사회
2019.08.	제 16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지도자
2020.03.~11.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 사업 LENS 사업기획 및 대구경북권역 코디네이터
2020.08.~12.	사회광환사업 기획 임팩트 프로젝트(루트임팩트, 우아한형제들) 제2기 팀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12.05.04.	제 90회 어린이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7.12.15	제 13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개인부분(청소년)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상

㉡ **아동인권 및 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10년 동안 꾸준히 하었는데 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10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담임선생님께서 복지부가 주최하는 제 7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참가자로 추천해주셔서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네요.

전국에서 다양한 친구들(초4~중3)이 모여 2박 3일 동안 교육, 환경, 진로 등 아동 관련 문제들에 대해 토의하고 정책결의문을 정부에 제안하는 행사였습니다.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 모든 게 처음인 어린 나이였는데 어떻게 했었는지 신기합니다. 그냥 끝없이 토의하고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지는 과정이 즐거워서 그 다음해에도 참여하고, 대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임원진(의장단)을 맡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대회 참여자로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대회 준비와 활동을 돕는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대학생 때는 아이들 토의를 지도하는 봉사자로 참여했으니 2010년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정책 관련 활동(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포용국가아동정책, 아동권리헌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도 생겼고, 나름대로 학술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생겨 UN아동권리협약 제 5.6차 민간(아동)보고서 집필에도 참여하는 등 아동과 관련해 관심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인상 깊었던 활동과 이를 통해 느낀 점이 있을까요?**

지난 2019년 2월, 정부보고서에 대한 보충적 자료로서 5년마다 제출하는 제 5·6차 UN아동권리협약(UN CRC) 민간보고서(아동보고서) 집필진으로 제네바 CRC 심의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교육 분야를 집필한 저로서는, '아동들이 사교육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교육 구조적 모순'에 대한 고민을 피력했었고,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한국의 공교육은 아이들을 성장시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가, 혹은 아동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가?”

— R. Winter, UN아동권리위원회(UN CRC) 위원장의 대한민국 Session(심의) 당시 발언 중 —

이 한 문장이 제게 크게 다가왔던 이유는, '당사자로부터의 인권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좋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동인권'에 관한 NGO 활동을 전

개해오며, '아동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리자', '아동과 직결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성인들로부터 기회를 보장받자'는 수동적인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믿음과 존중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장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보장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저만의 신념체계가 위 세션을 통해 확고해졌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제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에서도 '당사자 중심의 능동적인 인권'은 주된 가치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관심이 생겼습니다. 중, 고교 동아리 활동에 아동권리 관련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대신, 활동지원금을 주고 적절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도록 하자! 는 생각은 CBC(전국 아동인권 옹호 동아리 네트워크 사업), CFC(전국 아동 학술 예술 컨퍼런스) 제안으로 이어졌고, 초중등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아동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자는 생각으로 CJ EnM 산하 MCN인 DIA TV와 함께 I>Create라는 키즈 크리에이터 사업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국제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찍은 사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UN인권고등판무관실 본회의장입니다.

㉣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2학년이라, 구체적인 진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고민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교내, 교외에서 찾을 수 있는 팀 프로젝트나 공모전에 참여하는 정도로 3학기를 보냈네요!

UN아동권리협약을 주로 다루며 국제법 전반으로 확장된 저의 관심을 살려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영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공익적 성격을 갖는 소셜 벤처 창업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직접 기획해 진행했던 아동권리 관련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기업 혹은 재단의 후원금에 의존했었는데, 아무리 공익적이고 신선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에, 공익적인 사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인지도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공익을 강조하면 마땅한 수익모델이 생기지 않고, 수익만을 강조할 경우 점차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순이 있는데, 이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역시 가지고 있네요. 올해 7월에 공군으로 입대하는데, 천천히 제 진로를 잘 그려봐야겠습니다.ㅎㅎ

㉤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에 관심 있는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는 활동 추천 등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UN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의 범위는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기에,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시기를 아동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동 권리와 아동정책분야에서 활동하며 세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적어도 아동과 직결된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정책결정과정에 아동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아동정책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세대들(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에서, 정책당사자로서 자신들과 연결된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사회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관심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동들(초4~중3)의 토의를 이끌어 정책결의문을 만드는 행사인 제 18회 대한민국아동총회(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관)가 있으니 아동 권리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거나 아동 관련 NGO와 연을 맺어보고 싶으시다면 한번쯤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전문대학원 (EMBA) 소식



EMBA 지원을 앞두고 진학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7기 주임교수인 장영봉 교수를 만나 과목 소개와 EMBA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영봉입니다. 2007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캐나다에서 수년간 교수로 근무하다 귀국 후 2013년 성균관대학교에 부임하였습니다.

Q 교수님께서 맡고 계신 과목은 무엇입니까? 이 과목에서 주로 무엇을 배우며, 재학생들이 실무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EMBA에서는 '기술, 전략 및 시장에 관한 최신이슈'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모하는 기업의 전략, 경쟁 및 시장 전반에 관한 포괄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산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집약 관련 산업뿐 아니라 금융/유통/제조업 등 여러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 경쟁, 가격정책 및 규제 등 관련 이슈를 실제 사례와 이론적 배경을 매시간 강의와 토론 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와 혁신에 기대어 급성장한 빅테크 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변화하는 산업 구조 및 경쟁 구도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신의 자료와 사례를 기반으로 수강 원우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현시점에,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정보통신 관련 기술은 특정 영역에만 부합되는 국지적 도구가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적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수업 수강 원우분들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파생되어 나오는 기업/산업 관련 이슈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경영자로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EMBA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EMBA 107기 장영봉 주임교수 인터뷰

그동안 많은 원우들과 소통을 해왔고 하나의 에피소드를 특정하여 기술하기는 어렵습니다. 몇가지 생각나는 일화를 복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수강생 1: "기술적 진보 혹은 관리자의 역량이 조직의 업무와 성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막연하였습니다. EMBA에서 개설된 기본 과목 및 본 과목 수강을 통해 앞으로 회사생활에서 겪어 나아가야 할 일들을 간접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대학 졸업 후 20년 가까이 관리 책임자로 있었던 수강생 2: "지난 수년간 직감과 관성으로 해왔던 업무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관리자로서 관측은 성과를 보이던 시절 이루어졌던 일련의 결정들이 왜 옳은 결정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명암을 기업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연령/경험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보이는 두 명의 원우님의 말을 듣고 저도 MBA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MBA 과정이 주는 여러 가치가 있지만, 아마도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양성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성장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Q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성균관대학교 EMBA의 강점 중 하나는 각각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여준 전임교수들이 열정을 가지고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론과 실무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MBA 과정의 특성상 글로벌 학습세미나, 차별화 경영 등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통해 현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안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EMBA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동기/선배들의 끈끈한 관계가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EMBA에서 제공하는 '졸업생 청강제도'를 통해 졸업 후 현업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학술적/실무적 지식에 대한 갈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MBA 진학을 고민하는 예비 EMBA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현직 실무자의 시각에서, MBA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일부 교과목은 현재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실무와 다소 동떨어져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혹은 현재의 최고 경영자로서 실무/이론이 겸비된 다양한 교과목 수강을 통해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거시적 시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균관대학교 EMBA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22학년도 전기 모집, EMBA 입학설명회 실시

지난 10월 21일 오후 7시에 2022학년도 경영전문대학원 EMBA 전기 신입생 모집 입학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Webex)을 활용하여 접속하도록 공지하였으며 사전에 신청자를 모집하여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였다. 이날 김상균 학과장, 행정실 직원, 재학생 원우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EMBA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재학생 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재학생과 행정실 직원이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MBA 진학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김상균 학과장은 "성균관대 EMBA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단 오늘의 도전과 노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전했다.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는 오는 11월 13일(토)에 면접을 진행하



여 11월 19일(금) 17시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행정실(02-760-0857, 0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영전문대학원 EMBA 산악회 소개 108기 안시아 원우

Q 안시아 원우님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는 언제나 설렘을 안고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대면 인터뷰이지만 실제로 제 앞에서 질문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EMBA 산악회를 대표로 귀한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2학기부터 29대 산악회장을 맡게 된 108기 8조 "안 시아"입니다. 현재 해외영업 B2C 파트에서 마케팅과 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고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MZ세대의 대표 유형 인간입니다. 보다 더 남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즐기며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람들과의 교류에도 굉장한 행복함을 느끼는 정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지난 1년간 성균관대학교 EMBA만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한층 더 높아진 견문을 쌓고 있습니다.

Q 원우님께서 산악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악회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기질적으로 언제나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깁니다. 특히나 도전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 성취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취미 중 하나가 등산이었습니다. 많은 산을 가본 것은 아니지만

한때는 월 1회는 꼭 산에 오르곤 하였지요. 산은 성취감만 주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차분하게 명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동무와 함께 어느 날은 홀로 오르내리며 많은 상념들을 씻어 내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발목 염좌와 골절이 반복되면서 평지 산책 정도로 만족해야 했었지요. 그러다 입학한 EMBA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졸업하신 27대 김인태 산악회장님께서 집행부(운영진)제안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입학한 새내기인 제게, 한 시간이 넘는 정성 어린 설득은 굉장히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분이 리더로 계신 곳이라면 그 어떤 동호회일지라도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가입하게 된 것이 벌써 1년이 넘게 되었네요. ^^



Q 산악회 동호회에 대한 소개와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22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산악회는 말 그대로 EMBA 네트워킹의 성지라고 자칭합니다! “산과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회원 간 소통,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즐겁고 의미 있는 “산행과 동행”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효익 명예교수님의 섬세한 지도에 따라 다양한 산을 등정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상호 교류합니다. 운영진으로는 등반 대장님으신 109기 임성록 원우님을 필두로 총 13명의 집행부원이 함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누적 가입회원 1000여명!! 밴드 가입회원 722명!! 단독 가입회원 300여명이 넘는 자타공인 성공관대 EMBA 최고 최대 동호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예비산행, 매월 마지막 일요일은 정기산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인 매년 1월 1일에는 태백산을 정기를 받아 뜻 깊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태백산 눈꽃산행> 1박 2일 의 전통이 있습니다. 방학기간인 한 여름에는 야간산행이 종종 열리기도 합니다. 산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등산의 경험이 적으신 분들도 낮은 루트로 쉽게 산을 타시고 뒤쫓아 장소에서 함께 모여 화포를 풀 수 있기 때문에, 3~11살 된 자녀분들과 함께 오시는 원우님들도 계십니다. 산악회의 또 하나의 매력은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참석이 가능 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저희 산악회 회원님들은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그 끈이 이어지는 따뜻한 동호회입니다. 무엇보다 산악회 밴드에 꾸준히 글을 올려주시는 62기 이태성 선배님, 94기 김봉주 선배님은 저희 산악회의 든든한 버팀목 이십니다. 큰 행사 때 마다 찬조와 덕담을 아끼지 않으시는 64기 최승욱 선배님, 68기 심영인 선배님, 77기 전현경 선배님께서는 큰 기동처럼 산악회를 지지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시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선배님들과 역대 회장님들이신 96기 김현준 회장님, 99기 김유현 회장님, 100기 권성구 회장님, 101기 김영창 회장님, 103기 염경미 회장님, 104기 임종학 회장님, 104기 김희경 회장님, 105기 김인태 회장님, 107기 양국진 회장님께서는 뜻 깊은 찬조 및 꾸준한 참석과 응원의 말씀들로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소통을 해주시는 선배님들과 전임 회장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마디로 저희 산악회는 졸업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참석 할 수 있는 동호회! SKKU EMBA의 자랑인 날줄과 씨줄이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동호회라 할 수 있습니다. ^-^



Q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산악회 모임이나 활동에 제약이 많은 텐데요, 어떻게 소통하고 지내나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배님들께서 거의 주 1~5회 이상 밴드에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 주시기 때문에 카톡방과 밴드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행은 “따로 또 같이” 산행이라고 하여 4인 1조로 9개의 산을 다녀왔습니다! 6월 정기산행 때는 “베스트 포토상”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총 아홉 개의 팀이 경합을 벌여 재미난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산악회는 시국에 맞는 규정을 엄수하면서 산악회만의 매력을 흠뻑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벤트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



Q 회원모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모집시기, 자격요건 등)

회원모집은 수시로!! 언제든지!! 입니다! 모집 시기는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저를 포함한 산악회 집행부원 분들 혹은 학생회 분들께 가입의사를 밝히시면 밴드와 단독방에 초대 절차를 밟아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원우님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새로운 기수 분들이 입학하시는 입학 시즌에는 모든 동호회가 영상과 자료를 만들어서 입학식 때 홍보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2021년 2학기에 입학하신 110기 원우님들을 위하여 집행부(운영진) 홍보대장 109기 노윤성 원우님께서 수고해주신 홍보 영상입니다. ^-^

Q 신입 원우 및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봄은 살랑여서 설레고 여름은 청초해서 설레고 가을은 포근해서 설레며 겨울은 운치 있어 설레는 산행 그리고 동행, 함께 하고 싶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있으신 신입원우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SKKU EMBA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한 번 뿐인 인생, 잊을 수 없는 학창시절을 다시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아로새길 수 있는 EMBA 최강 산악회와 함께 동행 해 보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



경영대학원(IMBA) 소식

**“쾌락도 지혜도 학문도 그리고 미덕도
건강 없이는 그 빛을 잃고 만다.”
- 몽테뉴 -**



우리는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의 열쇠는 바로 건강에 있다. 다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건강은 인간의 삶과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로 악화된 현대인들의 몸을 위한 건강관리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보다 건강한 삶, 더 나은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데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통해 '건강한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에이치이엠파마의 김봉준 부사장을 만났다.

Q 본인 소개와 재직 중이신 HEM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치이엠파마에서 총괄 부사장, COO(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책임자) 김봉준입니다. 또 성공관대학교 경영대학원 IMBA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에이치이엠파마(HEM pharma)사는 건강한 삶의 가치를 섬기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HEM은 Human Effective Microbes의 약자로 당사는 장내 유익 미생물을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장환경을 재현하는 독자적인 특허기술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CEO를 보좌하고 인적자원관리, 조직문화, 시스템 구축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미래전략사업부의 부문장을 겸직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Q HEM을 대표할 연구(기술)는 무엇인가요?

당사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치료용 후보 미생물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HEM 20-01'균주가 특허 등록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New Dietary Ingredient, NDI)로 등재되는 등 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으며, 추가적인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PMAS(Pharmaceutical Meta-Analytical Screening) 방법에 대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장 환경을 재현한 체외 조건(in vitro)을 구축하여 각각의

김봉준 경영대학원 IMBA 총학생회장 (HEM pharma 부사장) 인터뷰

개인별 장환경을 재현하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등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하는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스크리닝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치료제 후보 미생물 및 물질의 신속 스크리닝,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프리바이오틱스 개발 등 미래 헬스케어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Q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술)이란 무엇인가요?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인체에 서식하며 공생하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오타(Microbiota)와 미생물들의 유전자(Genome)와 미생물이 생산하는 대사물질(Metabolites)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인간의 몸에서 서식하며 공생하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질병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신약 개발 및 신규 치료법 개발, 질병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기술 개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 PMAS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주력사업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후보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치료제로 개발하는 치료제 사업과 개인의 장환경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적합한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웨이 글로벌, 아모레 퍼시픽 등의 파트너 사와 업무협약(MOU) 및 전략적 투자(SI; Strategic Investment)를 통해 국내 및 해외 B2B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생산을 위한 GMP 원료의약품 생산 설비를 완공하고 1단계로 건강기능식품 GMP 공장 인가를 받았고,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샘플 및 치료제 후보 미생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미생물 통합 관리 시스템인 LIMS(Lab Information Management Sytem)를 구축하였습니다.

❷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기업들과의 사업 협력은 물론 회사 인력도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늘었다고 들었어요. 회사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이오 제약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경쟁력 있는 독자 기술과 치료제 후보 미생물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자이며 세계적인 미생물 석학인 빌헬름 홀잡펠(Wilhelm Holzapfel, CTO) 교수님과 창업자이며 CEO를 맡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전문가인 지요셉 박사의 '인류의 건강한 삶의 가치를 섬긴다'는 높은 비전하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핵심 기술과 우수한 특성의 미생물을 확보하면서 회사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❸ **HEM 재직 이전의 경력들이 궁금해져요.**

당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약 18년간 CJ제일제당에서 재직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한국 전통발효식품의 유용미생물을 발굴하고 상용화하는 신사업을 제안하고 제품화까지의 연구 개발을 총괄하여, 세계 최초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아토피로 인한 피부 가려움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2013년 "BYO 피부 유산균 CJLP133"을 출시하였고, 2015년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에서 대상(과학기술포장; 대통령상)과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식품, 바이오, 생물자원 등 각 사업의 유용미생물 신사업을 위해 유용미생물 발굴 및 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유용미생물센터장(상무)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❹ **'건강한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연구했던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항아토피 효능 균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시점에 세 살된 아들이 아토피가 심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매일 긁고 피가 나

고 약을 사용해도 증상 개선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습니다. 개발 중이던 유산균 중 아토피 증상 완화 효과가 보이는 유산균을 발견하여 식용이 가능도록 준비한 원료를 우리 아이에게 섭취시켰는데 약 10여 일 만에 피부 가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잠도 잘 자고 이후에도 뚜렷한 효과가 있어서 아빠로서 기쁘고 뿌듯했던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❺ **성균관대학교(특히 경영대학원 IMBA)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학 전공으로 경영에 대한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사를 하였고, 사업 전략 검토, 마케팅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그때마다 공부를 하고 경험적으로 어떤 방향이 옳았는지를 깨우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죠.

❻ **학생회장을 맡으실 정도로 활동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 IMBA에서의 '두 번째 학창 생활'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IMBA는 제가 생각했던 니즈를 해결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했던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고, 이 외의 과목도 청강을 통한 자기 학습이 가능합니다. IMBA는 총학생회와 해외 원우회, 그리고 3개의 동호회와 5개의 연구회 등 학생들이 운영하는 자치 활동회가 있는데요. 총학생회와 각 동호회, 연구회가 함께 진행, 또는 개별로 진행하는 콜로키움, 세미나, 활동, 소모임 등이 있으며 각 단체 카톡방과 오프라인에서는 해당 카테고리 분야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정보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원우회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 있는 원우들과의 교류와 각 기수별로 단합 및 소통도 활발합니다. 저의 경우 첫 학기부터 5개 동호회/연구회에 현재는 8개 모두에 가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지만 원우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배우는 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며 '인생의 두 번째 학창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출처 : 성균웹진 인물포커스(<https://webzine.skku.edu/skkuzine/section/people.do>)

국내 학위복 촬영 및 해외 원우들을 위한 학위복 대여 서비스 실시



지난 10월, 졸업을 앞둔 35기 경영대학원(IMBA) 원우들이 캠퍼스에 모여 졸업앨범 촬영을 진행하였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삼삼오오 조를 구성하여, 학교의 캠퍼스에서 촬영을 진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해외 원우들을 위해 학위복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금번에도 중국, 베트남, 두바이, 라오스 등 해외 각지에서 IMBA를 수강하며 졸업을 앞둔 원우들을 위해 본교 학생지원팀의 협조를 구하여, 졸업 대상 원우들이 전통학위복 졸업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경영대학원(IMBA) 신입생(38기)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지난 8월 14일(토)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경영대학원(IMBA) 38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경영대학원(IMBA) 행정실/학과장 등 소수의 인원만 모여 진행하였다. 안희준 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학균 학과장 환영사, 경영대학 행정실의 학사제도 및 수강신청 안내, IMBA지원실의 온라인 수업 수강 소개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총동문회장의 환영사, 총학생회장의 인사 및 소개가 이어졌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오프라인 못지 않은 구성으로 신입생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였다.



김학균 경영대학원(IMBA) 학과장

2022-전기 경영대학원(IMBA) 온라인 입학설명회

경영대학원(IMBA)에서는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을 위해 '온라인 MBA의 Next Level'을 슬로건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이번에는 학교의 새로 오픈한 Live Virtual Studio에서 진행되었다. IMBA 프로그램 전반 소개와 온라인 수업 시연, 재학생의 IMBA 경험담, 모집요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점차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MBA 과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여러 차례 진행된 입학설명회는 많은 지원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W-AMP 소식

지난 9월 30일(목) 오후 7시,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에서 W-AMP 22기 초청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날 특강은 '가수 윤희주의 노래와 사랑이야기'라는 주제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에 참여한 W-AMP 22기 이병화 원우는 "대부분의 원우가 추억할 수 있는 가수 윤희주가 진행하는 스토리텔링과 연주를 통해 색다른 강의를 맞볼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W-AMP 22기 초청특강(가수 윤희주)



W-AMP 선배와의 만남(김상문 동문 특강)

지난 10월 14일(목) 오후 7시,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에서 W-AMP 동문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다. W-AMP 1기 김상문 원우의 '걸어서 갈 수는 없었는가'란 주제로 1시간 여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주요 동문회 원우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선배 기수의 따뜻한 격려를 받고 22기 원우들이 동문들과 교류의 초석을 다지는 유익미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W-AMP 이동희 총동문회 명예회장은 "수많은 대학의 경영자과정은 존재하지만, 끈끈한 동문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을 자랑하는 성균관대 최고경영자과정(W-AMP)에 몸담은 22기 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W-AMP 22기 수료식

10월 28일(목) 오후 7시 부터 국제관 5층 새천년홀에서 W-AMP 22기 수료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료식 행사 또한 신동렬 총장, 안희준 학장, 이우현 총동문회장, 오원석 주임교수, 원우회 임원 등 소수의 내외귀빈들만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만찬을 시작으로 포토존 촬영과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신동렬 총장의 축사, 안희준 학장 축사, 이우현 총동문회장 축사, 오원석 주임교수의 축사 등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21기 및 동문회 축사와 22기 원우의 수료증 및 수료패 수여와 답사, 기념촬영 등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21기 서혜진 부회장은 "코로나19 속에서 작년에 W-AMP 프



그램을 먼저 수료한 21기처럼 활동상 제약도 많으시겠지만, 수료 후에도 다양한 원우회 활동으로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최종범 교수, 정년퇴임 인터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경영대학 교직 생활을 마치는 소회가 궁금합니다.

모교 경영학과에서 학부생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여 국내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모교 경영대학의 교수로서 정년퇴임을 하게 되어 성균관인으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대학생활이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준비를 하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처음과 끝을 모두 모교에서 생활하며 커리어를 매듭 지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할 즈음 산업은행에 취직하여 금융업에 상당히 오랜 기간 종사하다가 과감히 사표를 내고 서른이 넘는 늦은 나이에 무작정 미국 뉴욕주립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모험을 감행하였어요.

주변에서는 산업은행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유학을 가는 저를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했지요. 직장생활을 하면

서 가끔 저 자신에게 유학을 한 후 학문의 길로 들어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했어요. 학문과 실무 두 갈래길을 모두 다 택할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인데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안될 것 같아서 결국 학문의 길을 택했지요.

교수님께서 맡으신 연구 분야, 성과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뉴질랜드의 Auckland 대학에 부임하여 처음에는 폐쇄형 펀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조세제도가 기업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국제자본시장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자본시장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지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약 2년여 강의를 하다가 2002년 모교에 부임해서는 기업의 배당정책 및 자본조달에 대한 연구로 확장이 되었고 금융기관 경영, 파생금융상품 분석,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행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해와서 별로 지루한 느낌이 없었으나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 특정분야에 깊이 파고들며 국제적 Top Journal에 논문을 게재하는 노력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모교에 부임한 이후 재무분야의 세계 1위 및 2위인 최고의 학술지에 논문을 각 1편씩 게재하여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외국대학에 비해 모교와 같은 국내 대학에서는 강의부담도 훨

씬 많고 연구비 지원규모 및 통계자료 등의 구입에 제한이 많아 최고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최고수준의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개인적으로 큰 성취감을 느꼈었지요.

그런 논문을 게재한 후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저명한 학자들을 처음 만나 인사를 하는데 제 이름표를 보고는 저를 금방 알아보는 것이 아닌가요? 제 논문들을 읽어 저에 대해 잘 안다고 하여 Top Journal 게재 논문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지요.



오랜 교직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자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많이 했는데 주례사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애국하라는 멘트를 가끔 한 덕분인지 쌍둥이를 낳은 부부도 있고 한 제자는 1남4녀를 둔 큰 가정을 이루어 애국가 역할을 잘 해내고 있어 보람을 느꼈어요. 그 제자는 직장일 하면서 5남매를 키우면서도 계속 주경야독 끝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얼마전 저에게 박사학위논문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또, 수많은 학생들의 외국 유학을 위해 추천서를 많이 써주었는데 모두들 훌륭한 학문적 성과를 내고 있어요. 특히 한 학생은 미국 UC Irvin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얼마 전에 뉴욕시립대의 경영대학인 Zicklin School of Business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나 기뻐요. 저의 추천서가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고맙다고 하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경영대학에서 만난 제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세요?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대학원에서 신규과목을 강의하게 되어 강의준비를 위해 학부생 조교를 찾는 광고를 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와 조교 일을 부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학부생이 과감하게 대학원생들의 질문 등을 받고 답변도 준비하도록 훈련을 시켰지요. 학부생이 대학원생들의 학습을 돕는 튜터 역할을 하도록 했으니 이 학생은 긴장속에 어려운 학습내용을 대학원생들의 세 배 이상 공부를 해야 했지요.

이 학생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quantum jump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이 학생은 졸업 후 금융감독원에 취직하여 매우 성실하게 커리어를 쌓고 있고, 모교 경영학과 캠퍼스 커플로 결혼하여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낳아 잘 키우는 훌륭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 뿌듯하네요.

또 기억에 남는 한 제자는 금융회사에 다니며 주경야독으로 매우 훌륭한 수준의 박사학위논문을 썼고 저와 공저자로서 세 편의 좋은 논문을 함께 게재한 뛰어난 제자입니다. 이 학생은 경영학박사에 그치지 않고 법학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후 저서도 출판하고 현재는 실무계를 떠나 KAIST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주경야독을 하며 엄청난 커리어 변신을 꾀한 훌륭한 제자여서 그 추진력과 성실함을 오히려 제가 배우고 싶어요.

그 밖에도 많은 우수한 박사과정 제자들이 있는데 저와 함께 공동연구자로서 수많은 논문을 게재하였지요. 저는 정말 제자 복이 많았던 것 같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퇴임 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최근에 종종 몸이 안 좋아 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새삼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퇴임후에는 일단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회복하며 그 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즐기려 합니다. 전문적인 학술 논문 작업에서도 서서히 벗어나, 조금 더 일반인들을 위한 지식전파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대중적인 책을 써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경영대학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은 세계 어느 대학에 가서도 성공적인 학업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인 집단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정량적인 시험 성적에 기반한 서열화가 지나치게 고착화되어 자칫 시험 한 번 실수하면 스스로 열등한 그룹에 속하는 수준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속아서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한 구성원이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수준을 갖춘 지성인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진취적이고 용감한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나 학생들의 질문이 적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질문이 너무 많아 진도를 다 못 나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엉뚱한 질문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리석은 또는 틀린 질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고 믿고 계속 질문을 던지며 확실한 학습이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배양시키면서 학습효과를 증대시키는 매우 중요한 경로가 됩니다. 이해가 안되면 계속 질문을 던지며 완전한 이해가 될 때까지 파고드는 끈질긴 추구가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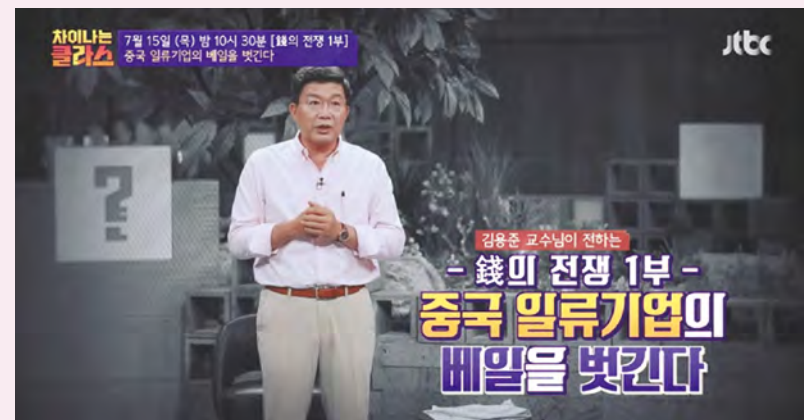
요즘 AI 등이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떠오르면서 경영대학 학부생들이 코딩 등을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만 코딩 능력 배양만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딩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큰 그림을 보며 풍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과감한 새로운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김용준 교수,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중국 일류기업의 베일을 벗긴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김용준 교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 - 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4차 혁명을 이끌어가는 중국 기업들을 파헤쳤다. 지난 7월 15일(목)에 방송된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성균관대 경영대학 김용준 교수가 4부작으로 진행되는 '錢의 전쟁' 문답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섰다. '중국 일류 기업의 베일을 벗긴다'를 주제로 문답을 나누었으며 중국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알리바바, 화

웨이, 샤오미 등 중국 기업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년 넘게 중국기업을 연구해 온 전문가지만 사실 중국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으며 김용준 교수가 어떻게 중국과 인연을 맺었는지를 본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이어진 수업에서는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을 비롯한 중국 일류기업들이 화두에 올랐다.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중국 기업들이 가진 독특한 기업 문

화와 숨겨진 이야기들에 크게 놀랐다.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으로, 현 기준 중국은 4차 산업에 있어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다. 김용준 교수는 "우리가 제대로 중국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시각으로 중국 기업을 바라본다면, 한국 기업의 대외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4차 산업이 나아갈 방향도 제대로 잡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준 교수 인터뷰 자세히 보기

영상으로 만나는 경영대학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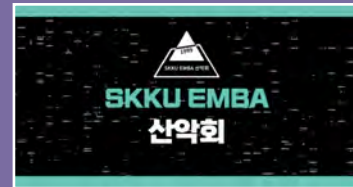
2021년 여름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축하영상



최종범 교수 퇴임 감사 영상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산악회 홍보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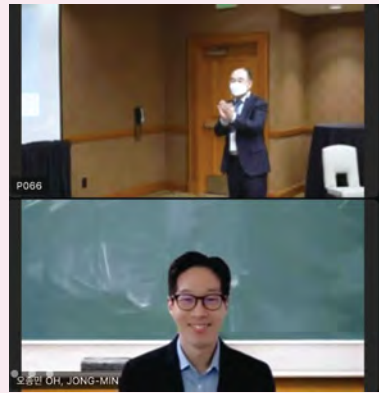
오종민 교수, 한미재무학회(KAFA) 신진학자상 (Shinhan Bank-KAFA Young Scholar Award) 수상



경영대학 오종민 교수는 한미재무학회(Korea America Finance Association)에서 수여하는 “2021 신진학자상(SHB-KAFA Young Scholar Award)”을 수상했다. 신한은행과 KAFA가 공동으로 시상하는 “SHB-KAFA Young Scholar Award”는 미국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젊은 학자들을 대상으로 재무 또는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위 취득 후 현재까지의 학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거둔 학자 1명에게 1년에 한번 수여된다고 한다. 미국 또는 국내에서 활동

하는 교수들 중 역대 수상자가 몇 안된다 고 알려져 더욱 의미 있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2일(금) Zoom으로 온라인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오종민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훌륭한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즐겁게 연구하며 지내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영예로운 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아울러, 부족한 것이 많지만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학교측과 크고 작은 배려를 해준 경영대학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과거 수상한 선배 교수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한국 및 글로벌 재

무 교육의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에 처음으로 한국지사가 만들어졌다. 북미의 대학교와 여러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재무 관련 분야의 한인 교수들의 연구, 교육 및 기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김영한 교수, 《부자, 관상, 기술》출간



경영대학 김영한 교수가 《부자, 관상,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CEO의 관상을 분석하여 회사의 위험도, 투자수익률, 경영 스타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fWHR’이라는 얼굴 가로폭 나누기 세로폭(눈썹부터 윗입술) 길이를 계산 방식을 통해 가로로 납작한 관상을 ‘상남자상’, 세로로 가름한 관상을 ‘꽃미남상’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 수천 명의 CEO의 얼굴을 분석해 fWHR 값을 계산하였으며 그들의 경영 스타일,

그룹 계열사 수, 시가총액, R&D 투자비율 등이 fWHR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영한 교수의 연구는 회계학, 경영학 글로벌 탑 저널은 물론 신경내분비학 저널에도 소개된 바 있다. 그 외에도 CEO의 음성의 높낮이, 검지와 약지의 길이, 서명의 크기, 인터뷰 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주가, 투자수익률, 위험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최신 연구결과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AI로 가족의 얼굴을 인식해 원스톱으로 보상처리하는 중국의 보험회사들, 각국의 유류고 뚜껑 위성사진으로 세계 유가 동향을 가늠하는 선물 트레이더, 지도를 펼치고 100만분의 1초로 승부하는 초단타 매매자들, SNS로 뭉쳐 공모도자를 응징하는 지구촌 개미들의 감마스퀴즈 등 금융, 보험, 투자 업계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최신 기술들을 보여준다. 김영한 교수는 ‘미디어가 주가 버블에 미

치는 영향’과 ‘CEO의 심리-생물학적 특질이 주가 변동성 및 인수합병 성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를 해왔으며, ‘핀테크와 행동재무’ 등의 과목으로 수차례 우수강의 상을 받았다. 행동재무의 지식을 전파하고자 유튜브 ‘닥터파이낸스’ 채널을 운영 중이며, 미국 기자들과 말춤 추면서 한 인터뷰가 블룸버그 TV와 전미공영방송 PBS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방송된 바가 있다. YES24 도서 소개 :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5373496>



우리 경영대학은 핵심가치인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성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학년도 2학기에 신입교원 3명을 임용하였으며, 전공은 마케팅(1명), 경영정보(1명), 핀테크(1명)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교원들로 초빙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경영대학 가족이 된 신입교원인 <마케팅 전공>의 채인영 교수, <경영정보 전공>의 박종현 교수, <재무 전공>의 김대진 교수를 만나다 만나 ‘주요 연구활동, 전공,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즐겁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수 있기를

채인영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성균관대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으로 들어오게 된 채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 경영학과 학부 및 응용통계학과 석사를 거쳐 프랑스와 싱가포르에 있는 INSEAD에서 박사를 하계된 이후 미국 Emory University에서 5년간 근무 후 이번에 성균관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의 전공은 디지털 마케팅 분야로 연구 활동은 디지털 광고, 입소문/인플루언서 마케팅, 미디어 마케팅입니다. 방법론으로는 통계, 계량 경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최적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에는 학부때부터 관심이 가졌는데, 교내 마케팅 동아리를 하면서 그쪽보다는 수치나 분석 위주의 재무나 회계쪽에 재능이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원래 공부를 오래할 계획이 있지는 않았아서 학부때는 금융권쪽으로 인턴 생활을 하고 취업도 은행권으로 예정되어있었는데 막판에 대기업 전략 기획본부로 방향을 틀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배웠는데, 세상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마케팅 모델링쪽에서 이러한 분야들이 많이 발전되어있었고 이를 배우기 위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막상 박사 과정에 가서는 거기 계시던 교수님과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프로젝트를 하다보니 이 분야는 신생인만큼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의 포텐셜도 크고 무엇보다 역동적인 분야라 재미를 느끼게 되어서 이쪽으로 계속 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것들이 좋았지만, 제가 배우고 자란 한국 학교에 대한 로망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일하게 되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을 만나 뵈고 싶고 현재에 또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멘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지식과 지혜, 견문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린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교수님께서 맡은 수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 마케팅 및 애널리틱스라는 수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에모리에서도 계속 가르치던 수업으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기존 마케팅 이론에 접목시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들을 이용하여 실습하는 수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SEO, digital advertising, social media marketing 등을 다루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디지털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Google Analytics 나 Social media listening tool, advertising simulation등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매우 즐겁게 수업하는 과목입니다. 이번에 혁신 수업으로 선정되어서 학생분들이 학점보다 보다 더 배우고 즐기는 수업에 초점을 맞추는게 저의 계획이고요, 이 수업은 에모리에서는 Delta, Home Depot, Coca Cola등의 Atlanta에 있는 큰 기업들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수업과도 크게 연관되어있어 학생들이 미국 글로벌 기업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사용하는지도 알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기회는 두드리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박종현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경영정보(생산운영) 분야로 오게 된 박종현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세계적인 명문으로 나가는 성균관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렘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같은 전공으로 석사를 받은 뒤 Purdue University의 경영대학에서 경영과학 및 운영관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에서 1년 반, 세종대학교에서 3년 반을 조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을 들었을 때나, 함께 연구하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미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자가 1차 목표라고 한다면, 현실을 공감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멘토가 되는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제 힘을 쌓아 학생들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도 종종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에게는 대학교가 사회로 나아가기 전 마지막 학교인데 녹록치 않은 사회생활을 시작 전에 많이 보호 받고 사랑 받고 나가면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져도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 빛이 비추고 있을거예요.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즐겁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수 있기를,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에 가까이 가는 중 이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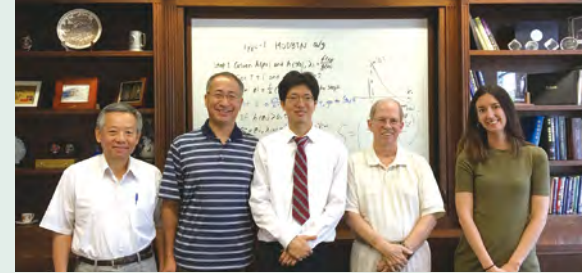


전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며,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생산 운영 분야는 기업이나 조직의 공급사슬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급사슬망은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치는 원천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포함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급사슬망을 보유하는 것은 성공하는 모든 기업들이 갖춘 필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으로 진보된 기술의 출현과 함께 방대한 데

이터가 쏟아지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다양한 계량 모델 개발과 과학적인 접근이 공급사슬망 관리에 더욱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유학을 가기 전 라면으로 잘 알려진 식품회사 농심의 공급사슬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전자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개선된 공급사슬망이 기업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더욱 진보된 생산 운영 기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는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실 뿐만 아니라 경영학에 대한 배움의 동기가 가득한 학생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성원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심, Ford 등의 회사에서 일하고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얻은 경험과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연구하며 넓힌 지식을 학내의 활동과 소통을 통해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님께서 맡은 수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학기 경영통계를 가르치고 있고, 향후 이 과목과 더불어 생산운영관리에 관한 과목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경영통계는 경영학 분야에 널리 이용되는 통계적 기법을 다룹니다. 기업의 여러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관련된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통계에서는 경영학의 다른 세부전공과목에서 다루게 될 다양한 통계 분석의 기본이 되는 개념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운영관리 수업에서는 공급사슬망을 관리하기 위한 계량 분석 및 운영 관리 기술을 다루게 되는데, 재고관리, 물류관리, 품질관리 등과 같은 주제를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로 공급사슬망에서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과 수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균형한 상황에서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해야하는데, 저는 이 경우의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수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에서 마스크, 치료제, 백신 등과 같은 의료용 자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분배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수리 모델링을 활용한 학제간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짜 댓글 혹은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여론 및 시장 분석 연구 등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학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달리랩스”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해당 스타트업이 작년과 올해 잇따라 정부사업지원을 받게 되어 산업적인 면에서도 열심히 달려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꼭 필요한 전공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느 수업이든지 다양한 학생 그룹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결과적으로 잘하는 학생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기 부여가 부족한 학생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교육자로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개별적으로 학생들과 일대일의 인간적인 관계를 쌓는 것을 좋아하고 중시하는 편이라 지금도 졸업생, 혹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며, 멘토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삶과 전공의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대학 생활 기간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동아리, 인턴, 교환학생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회들을 통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20여년 간의 청춘기를 보내고 나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정확히 모를 때에는 직접 부딪혀 알게 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회는 두드리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학시절이 커리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본인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길!

김대진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2학기부터 핀테크융합전공 및 재무분과에 부임한 김대진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까지 울산에 있는 UNIST에서 근무하다가 성균관대학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를 경영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였고, 졸업 후, 현대투자신탁운용과 교보투자신탁운용에서 채권펀드매니저로 7년여간 근무하다가 2005년 유학을 결심하게 되어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를,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재무학 전공으로 경영학박사를 취득 후 UNIST에 2014년 부임하여 지난 학기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전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핀테크융합전공과 재무분과에 속해 있으며, 재무학 분야에서 시장미시구조,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연구하며,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재무 분야도 더불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학습과 자연어처리 기법 등을 이용하여 재무학의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학부 재학시절부터 재무학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졸업 후 오래 동안 시장에서 채권펀드매니저로 일하면서 해당 연구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UNIST와 같은 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면서 공학과 금융의 융합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면서 핀테크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분야인 시장미시구조는 재무학의 한 연구분야로써 시장의 메커니즘, 가격결정과정 및 시장참여자의 행동 등을 연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격과 가치는 동일해야 하지만, 시장의 여러 요인과 제도 등에 의해 시장가격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자산가 격결정모형은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규모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원하는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와 팔자 가격의 괴리는 항상 존재하고 일정하지 않으며, 때로는 상하한가 제도가 있고, 우

리가 거래하는 유가증권 시장은 24시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즉, 시장에 항상 유동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투자자들은 직간접적인 거래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투자자들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증권시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금융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출시를 통하여 변화하고 있고 비금융권 기업 역시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첨단 금융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 방향 역시 다양한 인공지능과 새롭게 소개되는 기계학습 기법들이 기존 재무학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기술의 발전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형성 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와 같은 명문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연구와 강의를 통해 학교의 명성을 높이고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구를 통하여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면 더욱 더 훌륭한 연구자를 모실 수 있을 것이고 좋은 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학생들이 배출되면 더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제 본연의 임무인 훌륭한 연구와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맡은 수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부에서 투자론 수업을 대학원에서는 금융기계학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부 투자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산가격결정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은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결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을 나누는 것은 간단하지만, 시장에

수많은 자산을 어떤 비율로 구성을 해야 할까요? 특히, 수많은 위험자산을 이용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위험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위험자산의 수익률 또는 위험 프리미엄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러한 내용들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Markowitz, Sharpe, Merton, Scholes, Fama 등을 비롯한 많은 재무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투자론은 해당 내용을 쉽게(?) 배울 것입니다. 또한, 대학원 교과에서는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 등을 강의하고 해당 내용을 재무데이터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2015년도 미국의 시카고대학교 교수인 Zingales교수가 미국재무학회장에 취임하면서 “Does Finance Benefit Society?”라는 기초연설을 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금융혁신이 경제발전을 이끄는 질문에 57%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국가산업 중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 또는 금융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련의 금융관련 스캔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Zingales교수의 주장은 학계가 이 차이를 줄이는 연구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션은 투자자 보호, 자본 형성의 촉진,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효율적인 시장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학자의 연구목표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의 연구를 통하여 투자자보호를 해칠 수 문제점 등을 찾아내고, 기업과 개인의 자본조달과 투자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을 만들고,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와 규칙 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과거 트레이더와 운용자의 판단과 능력에 의존했던 시장에서 첨단 기술 기반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에 기반하는 새로운 트레이딩 기법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이 일반화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저의 연구 분야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장의 불공정 거래 탐지 연구, 텍스트 및 이미지 데이터에 의해 생성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덱스 개발을 통해 ETF 및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 방향 제시, 다양한 시장과 기업 관련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기존에 금융시장에서 관찰되지 못한 현상들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새로운 시사점이 나타날 수 있어, 재무학에서 기존에 연구되었던 주제들을 새롭게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구 방향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법들로 야기되는 다양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어떻게 설계하고, 자산운

용의 운용기법이나 트레이딩 기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투자행태 분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강의하는 교과목에서 많은 경우 암기 위주보다는 이해와 활용을 강조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무학에 있는 많은 내용을 습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양한 이론들을 실제 데이터와 접목하여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변동성을 계산할 때 보통 과거 수익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준편차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재무학에서는 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많은 공식들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우 복잡한 공식조차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문제는 어떤 변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넣어야 바람직한 값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공식들은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도출되고 그렇게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상적인 교육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이를 활용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더 넓은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저도 학부를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기관에서 오래 일한 만큼 경영대학 학생들의 고민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대학은 그 여타 전공에 비해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대학 전공은 매우 넓어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맞추어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길 바랍니다. 졸업 후 사회나 기업에서 어떤 인재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를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졸업 후 특정 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타산업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금융권으로 간 친구들이 제조업으로 옮기거나 제조업으로 간 친구들이 금융권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동종 산업군의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물론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야합니다), 업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 여러분의 첫 직장은 여러분 남은 인생의 커리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학시절이 여러분의 남은 커리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본인의 커리어 골(goal)을 명확히 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특히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나 금융기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동문회소식

이현구 회장(경영학과 68), 「중봉(中峰)뇌과학연구기금」 전달식 개최



이현구 회장[경영학과68, 라까사웍스(주)]은 11월24일(수) 우리대학의 뇌과학 분야 연구발전을 위해 「중봉(中峰)뇌과학연구기금」10억 원을 쾌척하였다.

기금전달식에는 이현구 회장을 비롯하여 라까사그룹의 이형우 총괄대표, 이지우 대표, 기동현 대표, 이주희 팀장이 참석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신동렬 총장, 박선규 (자)부총장, 남재도 성균융합원장, 김성기 IBS연구단장, 심원목 교수, 서민아 교수를 비롯한 BME학과 이준열, 우창완, 홍석준, 박천권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신동렬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대학이 2030년까지 30개 학과를 글로벌 20위권으로 도약 시키겠다는 야심찬 VISION2030 미래발전계획을 선포한데 맞추어, 이현구 회장님께서 VISION2030 4대 전략분야인 바이오와 뇌과학 연구에 이렇게 통 큰 기부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말

하고, '회장님의 뜻대로 뇌과학 분야 다원적융합 R&BD 생태계를 세계 탑티어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회장은 기념사에서 '뇌과학 분야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무궁무진한 연구분야와 연구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열한 삶속에서 차곡차곡 쌓아 온 부를 나누고 그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삶의 큰 즐거움이며, 뇌과학이미징 연구환경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기부자의 보람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성기 IBS연구단장은 감사말씀에서 '이현구 회장님의 큰 뜻과 정신에 따라 연구기금을 소중하게 사용하여 中峰이라는 회장님의 호처럼 성균관대학교의 뇌과학이 대한민국 뇌과학 분야의 中峰으로서,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원목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이현구 회장 연구기금 Fellowship Wall' 구축 계획과, 뇌과학 분야 5년 이내 대한민국 Top 1, 10년 이내 Global Top 10 진입의 미래포부를 밝혔다.

이현구 회장은 지금까지 약15여종의 기금에 기부총액 약 28억 원에 이르며 이번에 기부한 「중봉(中峰)뇌과학연구기금」 10억원을 더하면 총 38억 원이 된다. 전달식 후 뇌과학이미징연구단 투어와 오찬이 진행되었다.



황규종 대표(경영11), ‘서학개미봇’ 개발_“美 공시 8초만에 한국어로…투자업계의 구글 될 것”



“전문 뱅커와 애널리스트도 매일 아침마다 미국 증시 등락, 경제지표, 실적, 배당 같은 것을 정리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꼭 필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것도 굳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죠.” 조선일보 서학개미봇을 개발한 AI(인공지능) 스타트업 웨이커의 황규종(30) 대표는 지난 26일 본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으로 노동 집약적인 증권가 업무를 혁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학개미봇은 미국 증시에서 공시가 뜨면 8초 만에 한국어로 요약해 조선닷컴에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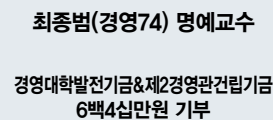
지난달 9일 서비스를 시작한 서학개미봇은 전문용어와 숫자로 가득 차 암호문처럼 보이는 미국 기업 공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한국어로 기사를 작성하는 일종의 AI 기사다. 예컨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다는 공시가 나오면, 데이터를 추출해 한국어 기사로 송출하는 식이다. 황 대표는 “미 증시에 상장된 611개 종목 기사를 밤새 400개까지 쏟아낸다.”며 “최근에는 머스크가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는 소식을 주요 외신보다 빨리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첫 창업에 나선 새내기 창업가다. 2018년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증권에서 프라이빗 뱅커(PB·고객 자산가 전담 자산관리사)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퇴근 후에도 투자할 기업이나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밤새 인터넷에서 리포트를 찾아서 읽고 정리해야 했다. 그는 “증권사마다 있는 블룸버그의 투자 정보 단말기도 전 세계 직원 수만 명이 일일이 손으로 정보를 입력해 넣는다.”며 “이런 비효율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군 복무 시절 알게 된 이들과 합심해 웨이커를 창업했다. 황 대표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친하게 지내던 옆 중대장이 카카오톡 개발자여서 CTO(최고기술책임자)로 모셔왔고 다른 임원도 군대에서 만났다.”고 했다. 황 대표는 “서학개미봇은 계속 똑똑해지고 있다.”고 했다. 개발 당시에는 ‘누가 주식을 얼마큼 팔았다’ 정도의 한 줄 메시지만 만드는 정도였는데, 초년생 기자를 가르치듯이 시를 계속 학습을 시켜 독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3% 이상·이하 급등락으로만 보여주던 주가 급등락 기사도 6%, 17% 등 실제 등락을 수치를 표시하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주요 주주의 지분 매매를 알리는 기사도 최고경영진(CEO)의 직책을 정확히 구분해 써주고,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핵심 주주면 별도로 적시하도록 했다. 황 대표는 “서학개미봇을 통해 투자자들이 언어와 지식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계속 더해갈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 정보 업계의 구글과 블룸버그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연말 해외 투자 정보 플랫폼인 웨이커 시범 서비스도 시작한다. 웨이커는 미국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13국의 시장과 기업 정보를 분석해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chosun.com)_美 공시 8초만에 한국어로…“투자업계의 구글 될 것”

〈제2경영관 건립추진〉



성균관대학교 총장 귀하

SKK BUSINESS SCHOOL

VISION 2030

GLOBAL INNOVATIVE LEADING
BUSINESS SCHOOL



GLOBAL



ASIA



KOREA

MISSION



Student Success with AI Interdisciplinary Talents

- Python Coding / AI
- Global Experience with Exchange & Internship
- Capstone Projects / I-core Courses



R&D for Management Knowledge

- Cross Management
- Global Collaboration
-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Solve Management Problems

성균관대학교
SUNG 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http://biz.skku.edu>